나눔의집 대표이사에 성화 스님…"정상화 주력"

5월 2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경기도 광주=임은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무국장 성화 스님이 나눔의집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이사회가 정식 구성되면서 2년 간 지속돼 온 나눔의집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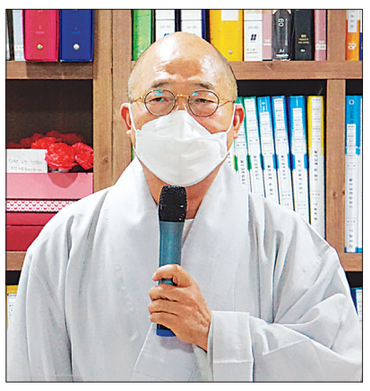
나눔의집은 5월 25일, 관내 교육관에서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성화 스님을 대표이사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덕림, 평중, 일운, 제민, 성화, 응묵, 희유 스님과 김현덕, 박종성, 이동성 사외이사 등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일운 스님이 임시 대표이사를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선출의 건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다수의 이사로부터 후보로 추천받았으며 단독 호선으로 만장일치 대표이사로 추대됐다.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고령의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나눔의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아픔의 역사를 가슴에 남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의집을 설립한 월주 스님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성화 스님은 "큰스님 유지를 받들어 많은 사찰, 스님, 불자,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후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어진 대표이사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 스님은 현재 근무 중인 승가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눔의집에 상근하며 2년간 산적한 개선 사항들을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다.



복지 행정 경험 20년 전문가

"월주스님 유지 성실히 이행"

정식 이사 체제에 기대 커져

성화 스님은 불교계 대표적인 복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1996년 서울 대치동 선재어린이집 운영을 맡으면서 불교 복지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스님은 불교계가 위탁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을 역임하며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 행신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 왔다. 이런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 신문 올해의 종교인 대상, 대통령 표창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고양시장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대표이사 선출 후에는 △2021년도 법인 산하시설 결산(안) 심의 △나눔의집 정관개정(안) △2022년도나눔의집 법인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나눔의집 양로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나눔의집 사태는 2020년 5월, MBC PD수첩이 나눔의집과 관련한 내부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일부 직원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 학대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왜곡보도된 후 혼란에 빠지자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나서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를 강행했지만 일부 규정상 위반사항뿐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도 나눔의집 이사진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정식이사 체제 구축에 나선 나눔의집은 3월 10일 정식이사를 선임하면서 2년 만에 정상화의 물코를 텄다. 이후 5월 13일에는 사외이사 3인을 선출, 11명의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산적한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 나눔의집 정상화는 물론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協, 선암사 탄원서 채택

5월 26일 본사주지협의회서 "조계종, 권한 제한 피해자" 사법부에 올바른 판결 요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선암사 소송과 관련, 사법부에 "조계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유권자로서의 행위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아 온 피해당사자"라며 올바른 판결을 청원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덕문)는 5월 26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제7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채택했다.〈사진〉

주지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교단의 쇠락과 자체규율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기 위해 구한말부터 정통교단 확립을 추진했지만 일제강점기 우여곡절 끝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을 설립해 단일교단을 창설했다"며 "해방 이후 현재 조계종까지 단일교단이 이어져 온 것으로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 일본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은 정통교단 확립 운동으로, 그 산물이 국가·사회적 중재와 비구·대처 합의로 출범한 조계종이기에 교단 운영의 주요본산인 선암사 역시 조계종에 소속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지협의회는 선암사에 대해 "국가법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관할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았다"며 "이에 반해 태고종은 교단 내부의 한 구성원이던 대처측 일부가 탈종해 창종한 불교종단이므로,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지협의회는 "이번 소송은 한국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1일 예정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 봉행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법회 봉행 △윤석열 정부의 불교공약 국정과제 반영 현황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세계 석학들 東亞 불교와 정치 논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5월 26일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HK+사업 첫 성과

문헌학·계보학 분석 통해

韓 불교 글로컬리티 조명

대회서도 관련 논문 발표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교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 HK+사업단은 5월 26일 교내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불교와 정치'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선정된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HK+사업은 HK사업을 수행한 연구소 중 우수 사례를 선발한 것으로 동국대는 2027년까지 21억원을 지원받는다.

HK+ 연구사업의 주제는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glocality)-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으로 문헌 기반의 계보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특수와 보편이 조화된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의 특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나 해당 사업의 첫 성과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엔스 브로빅(오슬로대), 리처드 맥브라이드(브리검영대), 광싱(홍콩대), 일미 스님(예일대) 등 해외석학들이 대거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대 한국불교와 아스카(飛鳥)·하쿠오(白鳳) 시대 불교의 왕권'을 발표한 리처드 맥브라이드 교수는 "초기 일본 왕정의 등장과 불교와의 관계는 한국의 백제와 신라의 시도와 관습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며 "백제, 신라의 왕들이 불교적 상징성을 통해 초기 사찰을 세웠듯이 일본 최초 사찰인 아스카데라도 동일한 기능을 지녔고, 6세기 후반 한국 사찰의 방식에 의해 건립됐다"고 강조했다.

'〈화엄경〉이 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을 발표한 엔스 브로빅 교수는 '한국의 화엄 전통과 범아시아적 배경 및 맥락(가제)'이라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화엄경〉 및 관련 텍스트들에 대한 디지털 다언어 에디션을 구축하고, 관련 도상학적 자료를 취합해 디지털 틀(digital framework) 안에서 문헌자료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정치, 종교사 안에서 화엄 사상과 교학 체계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것이다.

브로빅 교수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근대 국가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최근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정치, 종교, 문화사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면모들(transnational aspects)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대통선사(大通禪師) 신수(神秀)와 당 황제들-당나라 옥천사(玉泉寺) 대통선사 신수의 비명(碑銘) 번역 및 연구(광싱, 홍콩대) △당대 수계(受戒)의 이중성(정완스님, 동국대) △균여전 다시 읽기-고려 광종의 불교정책에 대한 화엄행자 균여의 협력 그리고 갈등(석길암, 동국대) △누가 한국불교를 대표하게 되었는가 - 1920~1945년 식민지 조선의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경쟁(일미 스님, 예일대)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해 달라"

박보균 장관, 5월 25일 예방해

원행 스님 "문화정책 개선" 당부

박 장관 "백만원력불사에 감동"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원행 스님은 5월 25일 박보균 장관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해 왔기에 큰 직책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통문화 발전에 남다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방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인도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을 기념해 종단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 순방을 다녀온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박 장관은 "인도 현지에서 보도된 관련 기사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35년 전 원장 스님의 원력이 씨앗이 되어 무수한 인연으로 이어진 연꽃들을 틔우고 이번에 분황이라는 큰 연꽃에 이르렀다는 점이 특히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이야말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장면 하나하나에 담긴 백만원력의 힘을 실감하면서 여러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분황사 건립불사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며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재차 당부했다. 총무부장 삼혜 스님도 "특히 전통사찰들이 중복규제와 서로 상충하는 각종 법령들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전통사찰은 자부담율이 20%로 책정돼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